

보도시점 (인터넷) 2024. 11. 24.(일) 11:00,  
(지면) 2024. 11. 25.(월) 조간

배 포 2024. 11. 22.(금) 오후

# 세계 어촌정책 소통의 장 '세계어촌대회'...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논의한다.

- 30개국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어촌정책 소통의 장으로 도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11월 24일(일)부터 27일(수)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부 프로그램은 '2024 세계어촌대회' 누리집([www.icfc2024.org](http://www.icfc2024.org)) 참조

세계어촌대회는 약 30개국의 정부 및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국내 어촌공동체 등이 모이는 국제 행사로, 202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창설되었다. 해당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인구감소, 재해 취약성 등 전 세계 어촌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에서 국내외 어촌 당국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어촌과 여성 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어촌의 비즈니스 전환과 새로운 기회, ▲국가·지역 간 수산·어촌분야 협력과 연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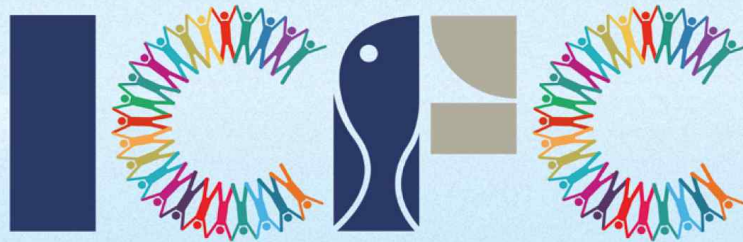
또한, 정부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킹 행사,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어촌의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왔다"라며, "이번 세계 어촌대회에서는 각국의 정책 경험에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더해 당면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어촌어항과	담당자	사무관	오영진 (044-200-5651)

#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대전환시대와 어촌의 도전

One Ocean, One Fishing Community:  
Challenges for Fishing Communities in an Era of Great Transformation



## 2024 세계어촌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4

2024.11.24.(일) — 11.27.(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www.icfc2024.org](http://www.icfc2024.org)

공동주최  
Co-Hosted by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주관  
Organized by



2024 세계어촌대회 사무국  
ICFC 2024 Secretariat